

2016 년 10 월 9 일 찾아오신 예수님(8)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생명의 주”(요 5:17-29)

[1] 인간 안에 발생하는 죄책감

눅 5 장: 어부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데 실패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고 말씀대로 했는데 깊은 죄책을 느꼈습니다. 즉각적, 자발적, 본능적으로 행동에 대한 죄책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죄책을 느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죄책입니다. p. Tournier 는 사람은 이러한 존재에 대한 죄책감을 어떤 특정 행위나 거짓으로 인하여 실패 등 구체적인 후회를 통하여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일상에서의 사례

아이를 pre kindy 에 보내는 첫 날, 아이를 놔두고 걸음을 돌리는 부모가 이것은 낯설고, 틀린 일 아닐까... 라고 책망하면서 동시에 내가 나쁜 부모인 것 같은 죄책이 느껴집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에게 사과 앨러지가 있는 것을 모르고 매일 먹였습니다. 후에 알고나서 사과 먹인 것을 후회했겠죠? 그리고 나같은 미련한 엄마가 있을까? 자신의 미련함에 대한 죄책을 느낍니다.

늑장을 부리다가 친구와 약속이 늦을 것 같아서 1 시간 늦게 만나자고 전화 했습니다. 그 친구는 내 말 때문에 늦게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전화한 것을 후회하겠죠? 차라리 그냥 기다리게 할 걸... 그리고 번번이 늑장 부리는 게으른 자신에 대해 죄책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싸우고 화해를 안 한다든지, 형제 자매에게 큰 사고가 닥친다든지, 가족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자신이 나쁜 아이어서라고 죄책감을 갖습니다. 이 또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죄책입니다.

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람은 후회하고, 죄책을 느끼고, 그 죄책은 행동에 대한 것뿐 아니라 존재에 대한 죄책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그것이 거짓 죄책이든지, 진정한 죄책이든지,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2] 죄책이 낳는 율법주의

죄책감은 수치와 열등감과 두려움, 불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죄책감이 세게 누를 때 사람은 괴롭고, 슬프고, 화나고, 비관 됩니다. 왜소하고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이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면 세계의 조화로운 질서를 깨고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을 깨어 버립니다. 그러면 많은 성격의 부정적 요소가 자라게 되며, 가장 최소의 할 일만 하며 살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성경이) 인간의 죄책을 집요하게 지적하실까요? 병자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14 절. 8 장 간음한 여인 참고). 이 사람의 병은 어떤 죄로 말미암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바램은 이 사람이 또 죄를 지어서 더 깊은 죄책이 영혼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생명의 풍성한 길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논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겠습니다. 이들에겐 역사적으로 수난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그 때마다 처절하게 회개했던 것은 말씀(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책이 컸습니다. 이 죄책을 감쇄하기 위한 일은 그들의 최고의 권위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죠.

바로 여기서 유대인이 스스로 구원하려는 인간적 자구책을 보아야 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여러 모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책을 느낄 때 율법이 하는 일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그리스도께서 처리해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기대하게 합니다. (5:39) 죄책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3] 율법주의의 다양한 얼굴들

1. **율법주의** 토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책을 덜어내고자 합니다.
2. **도덕주의**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 군자라고 인정 받으면 자신은 죄와 죄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완벽주의** 다른 사람들이나 나 자신이 완벽하다고 인정하면 내 존재에 죄책이 없다고 믿게 됩니다.
4. **형식주의** 사회(공동체)의 시스템/형식에 잘 적응하면서 남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처럼 가족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억울해 합니다. 시스템과 가정을 혼동합니다.
5. **원칙주의** 원칙에 충실하면 잘못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모든 방식들은 같은 맥락에 있으며 죄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인간 중심적 노력들입니다. 이 자구책들은 클라이맥스에 이르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러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잘못을 타인/공동체/사회/지도자를 비난하고 탓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책이 기쁜 소식에 의해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책이 해결되지 않으면 힘 있는 자리에 오르거나, 강한 자/어른이 되면, 어느 정도 비난하고 탓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슴 아픈 교만입니다.

[4] 정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심판할(정죄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22 절)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24 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은 죄책을 지고 정죄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정죄 받지 않으므로 생명의 맛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심판 대신에 정죄를, 생명 대신에 기쁨, 자유, 경이를 대입해서 읽어 보십시오. 율법주의의 성향이 아닌 복음안에서 생명을 살고 누린다는 의미를 깊이 발견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눔의 질문들>

1. 죄책의 문제가 심각한 영적 문제로 인식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그러할까요?
2. 위에서 말한 모든 ~주의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방식에 비추어 합당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주의에 치중되어 있습니까?
3. 비난과 정죄 없는 세상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비난이고 어떤 경우에 건전한 비판이 될 수 있습니까? 기준이 무엇일까요? 비난과 정죄가 없다면 우리의 관계와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